



한국적 이미지 접목, 고품격 화장품패키지 승화

'베르당 클래식' 베스트패키지디자인컨퍼티션 대상 수상

이 덕 형 / 나드리화장품 디자인개발부장

하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가 주 관해 매년 말 정기총회에 서 시상하는 베스트패키지 디자인컨퍼티션은 각 대학에서 패키지디자인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한 해동안 국내에 선보인 패키지디자인 중 가장 우수한 세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제도이다.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더 큼니다”라는 이 부장은 외국디자인의 모방이 더 잦은 화장품 패키지디자인 분야에 한국적인 문양을 넣은 디자인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적지않은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디자인 컨셉은 이미 4년 전에

제안했었으나 고리타분할 수도 있다는

지난 99년 제 5회 베스트패키지디자인컨퍼티션 대상에는 나드리화장품의 베르당 클래식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한국적 문양을 화장품패키지디자인에 도입, 새로운 디자인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지배적인 의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뤄져 왔 습니다. 이제라도 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고, 모방의 단계를 지나 독창성을 추구하는 국내 화장품 패키지디자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는 이 부장이 적용한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은 바로 전통의상의 흥배문양이다.

베르당 클래식을 디자인한 이덕형 나드리화장품 디자인개발부장은 고급화장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존 베르당 제품의 브랜드를 그대로 살리는 한편, 새로운 기능성을 더한 베르당 클래식을 한국적인 독창성을 가진 패키지로 탄생시켰다.

청색과 적색을 주색상으로 투웨이케익과 립 스틱에 적용한 이 부장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 색상과 반사광이 다른 다이아코팅을 적용해 한국적인 고품스러움보다는 화장품패키지의 이미지에 맞게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패키지디자인상이니만큼 출품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대학교수들이 선정했다는 점에 더 큰

이미 선진유럽을 중심으로 동양적인 선과 색상을 적용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 부장은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동양의 미를 가진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디자인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호기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한국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초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색조제품을 중심으로 단일제품에는 꾸준히 한국적인 문양과 색상을 적용해 나드리화장품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개발해 갈 생각입니다”라는 이 부장은 이러한 의지를 담은 패키지가 나드리화장품의 제품과 어우러져 좋은 평들을 얻고 있어 많은 힘을 받는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대한민국 밀레니엄상품으로 선정된 ‘로얄패밀리 투웨이케익’의 경우를 봐도 그 자신감의 배경을 읽을 수 있는데 국보 155호인 백제시대 금관의 중앙장식 문양을 선택해 금도금을 통해 무광과 유광효과를 동시에 내고, 큐빅으로 시선을 모아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제품이다.

“저희 나드리화장품 디자인개발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에서부터 목업, 설계에서 감리까지 담당자가 일괄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입사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에 대한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고 숙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열어놓은 셈이 되지

요”라고 설명한 이 부장은 나드리화장품의 패키지디자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계기를 이러한 과정을 거친 디자인개발부 각 인원마다의 프로화와 함께 이 부장이 패키지디자인을 시작한 후 24년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High Quality’를 보유한 종합예술이라는 자부심이 디자인개발부원들과 함께 공유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1세기에는 시각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 지속적인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 이 부장은 이와 함께 색상과 기술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독창성을 가진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디자인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없었다면 독창적인 성격의 패키지를 선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나드리화장품의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재삼 강조하는 이 부장의 말처럼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대한민국화장품우수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는 오너의 디자인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디자인개발부서의 프로정신이 뭉쳐 만들어낸 나드리화장품 패키지의 지금이 그간 꾸준히 축적해 온 노하우에서 비롯된 진정한 실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윤지은 기자